

인문대 소식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발행일 2020년 9월 전 화 051-510-1501
 발행인 이종봉 편집인 이선진
 디자인/제작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전 화 051-510-1932

학사일정

2020. 9. 1.(화)	2020학년도 2학기 개강
9. 14.(월) ~ 18.(금)	학위청구자격 종합시험
9. 18.(금)	학위청구자격 외국어시험
10. 5.(월) ~ 12.(월)	2020학년도 2학기 수강취소(W)
10. 12.(월)	2020학년도 2학기 수업일수 1/3선
10. 13.(화)	2020학년도 전기 학위청구 심사용 논문 제출
10. 19.(월) ~ 24.(토)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10. 28.(수)	2020학년도 2학기 수업일수 1/2선
11. 16.(월)	2020학년도 2학기 수업일수 2/3선
11. 18. (수) ~ 20.(금)	2020학년도 겨울계절수업 수강신청
12. 8.(월) ~ 19.(토)	2020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12. 20.(일)	동기휴가 시작
12. 22.(화) ~ 21.1.18.(월)	2020학년도 겨울계절수업
2021. 1. 7.(목)	2020학년도 전기 학위논문 심사결과보고서 및 최종논문 제출
2. 8.(월) ~ 10.(수)	2021학년도 1학기 재학생 1차 수강신청
2. 15.(월) ~ 16.(화)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 수강신청
2. 17.(수) ~ 18.(목)	2021학년도 1학기 재학생 2차 수강신청
2. 26.(금)	2020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Contents

02 | 미래내 단상 03 | 교수동정 04 | 교수동정 / 인문대 소식 05 | 인문대 소식 / 동문 소식 06 | 학과·연구소 소식 08 | 신간소개

故 고현철 교수 5주기 추도식 개최

「고현철 교수 추모사업회(회장 이종봉-인문대학장)는 2015년 8월 17일 총장직선제와 대학 자율화, 민주주의 수호 등을 요구하며 투신한 국어국문학과 고현철 교수의 5주기를 맞아 2020년 8월 13일 오전 교내 10.16기념관에서 추도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추도식은 고현철 교수의 약력과 업적 소개, 추모사업 경과 보고에 이어 차정인 부산대 총장과 김한성 부산대 교수회장, 오홍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이병의 부산대 직원협의회장, 도연호 부산대 총학생회장의 추도사 순으로 진행됐다. 또 인문대 학생회장인 이영준 학생이 고현철 교수의 시 「비」를 낭송했고, 부산대 음악학과 중창단도 추모곡으로 고인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교내 인문관 앞에 위치한 고현철 교수 추모 조각상 앞으로 이동해 묵념을 했다.





철학과
조창오

미래내 물 흘러가는 소리



많은 비를 뿌린 긴 장마 동안 미래내는 불어난 물 탓에 엄청난 소리를 냈다. 평소에 미래내의 물 흘러가는 소리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하는 배경음악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번 장마에 미래내는 전면에 나섰다. 더는 배경음악이 아니라 독주가 되었다. 그것도 공포를 느끼게 하는 독주다. 자연은 자신의 존재를 홀로 뽐낼 뿐이다.

서양에서는 자연을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자연을 그대로 두면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하니, 이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정치'이며, '이성'이다. 인간은 곧 '정치체'를 조직해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고 자신을 구원한다.

플라톤은 '정치'를 인간에게만 주어진 신의 선물이라 했다. 자연의 상태에서 인간은 동물보다 취약하다. 인간은 딱히 자기 보호 수단도 없다. 두꺼운 가죽도, 날카로운 손톱도 없다. 호랑이와 일대일로 싸우면 인간은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정치'를 통해 멍치게 되고, 전쟁술을 통해 자연을 극복하게 된다.

플라톤이 인간 바깥에 있는 자연을 극복하는 것이 '정치'라고 했다면 홉스는 인간 안에 있는 자연을 극복하는 것이 '정치'라고 했다. 인간이 주어진 그대로 살게 되면 제 욕심에 휘둘러 살기 때문에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정신을 차리고 자기 안에 있는 자연을 통제하기 위해 '정치체'를 구성한다. 정치는 인간을 구원한다.

'정치'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서로 멍치게 되면 편이 갈라지게 된다. 누구는 내 편이 될 수밖에 없고, 누구는 내 편이 된다. 정치는 이처럼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행위이다. 내 편으로만 구성된 공동체 속에서 나는 생존을 보장받는다. 내가 속한 공동체 바깥에는 네 편이 있다.

자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연을 통제하고 극복하기 위해 인간은 멍쳤다.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을 구원한다. 하지만 '정치'를 통해 다시금 내 편과 네 편을 가른다. 내 편과 내 편이 대립하는 상황이 바로 '전쟁' 상황이다. 결국 '정치'는 인간을 구원하는 동시에 다시금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 하지만 이는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이념은 계몽주의이다. 즉 자연보다는 이성이 사회를 지배해야 한다. 하지만 누구나 알 듯이 내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는지가 나의 삶을 많은 부분에서 지배한다. 나의 부모님, 나의 가정 환경, 즉 나의 '자연성'이야말로 나의 삶을 관통한다. 누구도 흡수제이길 원치 않지만, 이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고, 자연 그 자체다. 정치와 이성이 지배해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자연은 얼마나 커다란 위력을 지니고 있는가? 그래서 '분배'는 매우 강조된다. 하지만 그것의 한계는 뚜렷하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자연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자연과학의 발전은 자연극복 이념을 실현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인간이 자연을 알면 알수록 자연에 대한 무지의 크기는 더욱 커질 뿐이다. 광대한 우주를 파헤치다 보면, 인체의 신비를 좀 더 알면 알수록, 인간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불쑥 찾아오는 죽음의 방문은 인간에게 자연의 힘을 더욱더 뚜렷하게 보여준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간의 물리적 흐름을 이념적 흐름으로 뒤바꾼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내포한다. 기승전결 따위의 서사구조가 그렇다. 하지만 자연은 이 이야기의 완성을 결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인간이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면 만들수록 자연은 이 이야기의 흐름을 끊고 파괴한다. 시간은 그냥 흘러갈 뿐이다. 미래내 물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하지만 물이 흘러야 도서관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도 가벼워진다. 우리는 미래내가 전면에 나서지 말길 빌 뿐이다. 나의 발걸음에 맞추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뿐이다.

정년퇴직 교수



영어영문학과
배만호 교수

부산대 문리과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센트럴 미주리 대학에서 석사, 부산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5년 3월에 부산대 영문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영국소설을 가르쳤다. 새한영어영문학회 회장과 한국어영문학회 수석부회장을 거쳐 회장을 역임하고, 전국 국공립대학 인문대학장협의회 회장, 부산대 인문대학장과 학생처장을 역임한 바 있다.



사학과
김동철 교수

1987년 4월 사학과에 부임한 이래 약 30년간 한국사 전공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에 큰 공헌을 하였다. 특히 부산의 역사-동래상인, 왜관, 통신사, 개항기, 일제시기 등-와 관련된 많은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소장을 역임(2005~2018년)하면서, 2007년 연구소가 한국학술진흥재단 우수성과 중점연구소로 평가받는 등 연구소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 지원(HK)사업인 '로컬리티의 인문학' 연구단 단장(2007~2017년)을 맡아 연구소와 인문학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향후 명예교수로서 꾸준히 후학을 양성할 예정이다.

명예퇴직 교수



국어국문학과
최규수 교수

1990년 『우리말 주제어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부산대 국어국문학과에서 1991년부터 국어형태론 및 국어학사 전공 교수로 재직하였다. 그리고 재직 기간 중 『주시경 문법론과 그 뒤의 연구들』, 『한국어 통사론 입문』, 『한국어 형태론 연구』, 『한국어 형태론의 이해』 등의 저서를 집필하였으며, 특히 『한국어 형태론의 이해』는 2018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Jerrold M. Sadock의 『자율어휘통사론』, Carl Pollard와 Ivan A. Sag의 『통사론과 의미론』 등을 번역하며 국내외의 해이론 연구에도 이바지하였다. 30여 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특히 최근 3년간 5~6편을 게재하며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쳤다. 한편, 교육적으로는 석사 37명, 박사 12명, 석박사 수료생 30여명을 양성하여 많은 신진연구자를 발굴하였다. 이후 명예교수로서 연구와 후학양성에 매진할 것이다.

신임교수 부임



중어중문학과
최진아 조교수

이화여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2002년에 연세대에서 『唐代愛情類傳奇研究』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7년中国社会科学院文学研究所와 2008년 스탠포드대 아시아태평양센터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다. 논문으로는 『제갈량의 박색부인, 미인으로 변하다 - 조선소설 <황부인전>에 투영된 중국고전서사의 변용』, 『Vision of Happiness and Comfort: Stories and Images

of Guo Ziyi in Chosŏn Korea』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幻想, 性別, 文化: 韩国学者眼中的中国古典小说』(2013), 『중국고전서사의 의미공간』(2017) 및 공저 『중화미각 짜장면에서 휘귀까지, 역사와 문화로 맛보는 중국 미식 가이드』(2019) 등이 있다.



일어일문학과
하재필 조교수

한국외국어대 일본어과를 졸업 후, 2004년부터 일본 오사카대의 Kudo Mayumi 교수 지도를 받으며 현대 일본어 문법에 관하여 공부를 하였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외국어대에서 조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현대 일본어의 동사론을 중심으로 한 탈동사화(문법화 및 어휘화)이며, 그 외에도 언어유형론, 19세기말 이후의 번역·번안을 통한 일본어와 한국어의 언어 접촉 등이다.



영어영문학과
안소미 조교수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2019년에 미국의 Texas A&M University에서 "Age, Degeneration, and Regeneration in Fin-De-Siècle British Fiction"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전공은 19세기 영국소설과 여성문학이며, 대표논문으로는 "The Metropolis and Female Citizenship in Mary Wollstonecraft's *Original Stories from Real Life*", "The Old Woman and the New in Eliza Lynn Linton's *The Second Youth of Theodora Desanges*" 등이 있다.



언어정보학과
서민정 조교수

부산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후, 『한국어 정보 처리를 위한 토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 부산대 인문학연구소에서 재직하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기의 언어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한국어에 내재된 문화와 사상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다. 저서로는 『토에 기초한 한국어 문법』(2009), 『민족의 언어와 이데올로기』(2011, 공저), 『경계에서 만나다: 디아스포라와의 만남』(2013, 공저)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한국어 검목적어 구문에 대한 고찰』, 『근대적 언어 인식에 따른 개화기 한국어 입말 동사토의 글말화 -'ㄷ'과 -'ㄴ'의 확립 과정을 중심으로-』, 『20C 전반기, 표준어에 대한 인식 검토: 표준어의 한계 극복을 위하여』 등이 있다.



사학과
강정원 조교수

부산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박사과정을 거쳐 『일제의 山林法과 林野調査 연구-경남 지역 사례-』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꾸준히 한국 근현대의 산림문제를 살피왔으며, 부산-경남의 연구자들과 지역사 연구도 활발히 하고 있다. 대표 논저로 『한국토지용어사전』(2016, 공저), 『해방 후 산림문제를 둘러싼 개혁논의와 그 귀결』, 『1910년대 일제의 국유림구분조사 과정과 법률적 성격』 등이 있으며, 관심있는 연구 주제는 국가-산림 '개발'과 환경, 재해 재난 등이다.

인문대 교수 연구년 및 장기파견

I 허순우	국어국문학과	1년	2020.3.1.~2021.2.28.
I 류민화	일어일문학	1년	2020.9.1.~2021.8.31.
I 장경철	영어영문학과	1년	2020.2.17.~2021.2.16.
I 이송이	불어불문학과	1년	2020.3.1.~2021.2.28.
I 김종수	독어독문학과	1년	2020.3.1.~2021.2.28.
I 권순복	언어정보학과	1년	2020.3.1.~2021.2.28.

2020년 「부산대학교 교육자상」 - 영어영문학과 배만호 교수

10년 이상 재직 교원 중 뛰어난 교육활동을 해 온 우수 교원에게 수여 되는 「부산대학교 교육자상」에 영어영문학과 배만호 교수(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선정됐다. 배만호 교수는 존경받는 영문학자로서 학문 발전과 교육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0년 새한영어영문학회장, 2015년 한국영어영문학회를 지냈고, 수많은 석박사 제자를 배출했으며 영어영문학과 총동문회장직을 수행해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후학양성에 매진해 왔다. 인문대학장과 학생처장 등을 맡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남다른 열정과 명쾌한 강의로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후배 교수들에게 귀감이 되어 왔다.



2020년 「부산대학교 신진연구자상」 - 점필재연구소 신상필 교수

우수한 연구결과물을 창출하여 동료 교수들의 모범이 되는 신진연구자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대학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부산대학교 신진연구자상」을 제정하였는데, 점필재연구소 소속 신상필 교수(사진 제일 왼쪽)가 수상하였다.



2020년 「세종도서」 선정



김종수 교수(독어독문학과)가 번역한 「디지털 휴머니즘: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과 노선숙 교수(일어일문학과)가 번역한 「마쓰이본 이즈미시키후집(학교방)」이 2020년 세종도서 교양부문과 학술 부문에 각각 선정되었다.

EBS라디오 프로그램 「듣는 인문학」- 김준수 교수 강의



EBS 오디오 천국의 「듣는 인문학」 시즌 2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제 1편에 철학과 김준수 교수님께서 초청되어, 7월 17일(금)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출연하여 “헤겔의 절대정신과 인간”라는 주제로 강의 녹음을 마쳤고, EBS 라디오 편성에 따라 9월 초 방송될 예정이다. 본 강의는 헤겔이 절대정신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낙관적 시선을 통해서 포스트코로나시대 이후 인간 주체적 행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강의이다.

인문대소식

2020학년도 2학기 학과장 명단

2020학년도 제2학기 학과 및 협동과정의 운영을 총괄하게 되는 학과장 및 협동과정 전공주임 교수는 다음과 같다.

국어국문학과장	류속영 교수	2020. 2. 1.
중어중문학과장	남덕현 교수	2019. 9. 1.
일어일문학과장	노선숙 교수	2020. 3. 1.
영어영문학과장	김유곤 교수	2020. 1. 15.
불어불문학과장	박형섭 교수	2020. 3. 1.
독어독문학과장	서은주 교수	2019. 2. 1.
노어노문학과장	양영란 교수	2020. 9. 1.
한문학과장	김남이 교수	2020. 3. 1.
언어정보학과장	권연진 교수	2019. 3. 1.
사학과장	서영건 교수	2020. 2. 1.
철학과장	손영삼 교수	2020. 3. 1.
고고학과장	이창희 교수	2020. 3. 1.
인지과학 전공주임	윤애선 교수	2020. 3. 1.

2020학년도 후기 인문대학 박사학위 수여자 명단

I 김세현 (영어영문학과) [지도교수 : 이선진]
주류 영화와 드라마의 영한 자막에 나타난 성소수자 번역 연구

국립대학육성사업

2020년 하계방학 동아시아지식학 강좌 개최

인문대학에서는 올해 3월부터 국립대학육성사업 3차년도에 돌입하여 약 1억 7천여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며,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의 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춰 정규 교과과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학생 지원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해 제공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동아시아지식학 강좌>는 아래와 같이 하계 방학부터 약 10여 개의 강좌를 기획하여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부 강좌는 일정을 연기하거나 교내 구성원으로부터 참석자를 제한하여 축소 진행하게 되었다. 추후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면 및 온라인 강좌 형태로 개최를 예정 중이다.

집중강좌

기억의 정치와 미디어: 홀로코스트와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회차	강사	일시
1강	김려실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7/29(수) 14:00~16:00
2강	이희원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개최연기
3강	장수희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강사)	

하상공주 노자도덕경 해설

강사	일시
손태호 (부산대 철학과 강사)	개최연기

문화수용 매체로서의 시청각 문화와 중국문학 연구의 확장 가능성

강사	일시
장동천 (고려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개최연기

중국의 4차산업과 데이터읽기

강사	일시
최창익 (울산대 중국어중국학전공 겸임교수)	8/28(금) 17:00~19:00

학술강좌

중국의 4차산업과 데이터읽기

강사	일시
이상도 (울산대 중국어중국학전공 교수)	8/28(금) 15:00~17:00

지식학 연구소모임 운영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가 함께 참여하여 동아시아지식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콜로키움 형식의 스터디 모임인 지식학 연구소모임을 계속해서 운영 지원하고 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주제로 연구 모임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동아시아지식학 차세대 학술포럼>을 개최하여 각 연구 모임의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제	주관학과
• 화인화문문학연구	중어중문학과
• 『조선시보』 기사에 보이는 조선의 교육과 문화	일어일문학과
• 일제강점기 신문의 광고 연구	영어영문학과
• 영미문학을 통해 혼종성 읽기	
• 말소리와 언어인지	독어독문학과
• 소비문화의 기호학	
• 통일독일의 문화변동 토론	

주제

주관학과

• 통시언어학적 관점에서 언어보편성의 문제 재고찰	언어정보학과
• 동아시아 언어와 문화의 이해	
• 고전문헌 강독(동국이상국집만주실록 원 정잔·남천일록)	사학과
• 레비나스철학과 동아시아지식학의 융합가능성	철학과
• 기술철학연구	
• 진나라 고고학	고고학과
• 세계문화유산 스터디	
• 일본 고고학	

동문소식

「제17회 자랑스러운 부산대인상」 - 김진수(영어영문학과 81학번)

김진수(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부산일보 사장이 「제17회 자랑스러운 부산대인상」에 선정됐다.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은 1989년 부산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경제부장·편집국장을 거쳐 이사와 상무이사를 지냈다. 2019년부터 부산일보 대표이사 사장을 맡아 조직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혁신을 도모해 왔고, 한국지방신문협회를 통해 지역언론 육성책을 논의하는 등 지역언론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56회 백상예술대상 여자 신인연기상」 - 강말금(국어국문학과 97학번)



강말금(본명: 강수혜)씨가 2020년 제56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여자 신인연기상」을 수상하였다. 그녀는 2020년 3월 5일 개봉한 영화 『찬실이는 복도 많지』의 주연 '이찬실'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수상소감으로 "너무 부족한 제가 이 상을 받은 건 가능성을 봐주신 거로 생각합니다. 찬실을 만난 건 너무 행운이었어요."라고 밝히며, 김초희 감독과 배우들, 현장 스태프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했다. 강말금씨는 서른 살에 연기에 입문해 14년간 연극 무대에서 실력을 쌓은 후 2018년 단편영화 「자유 연기로 주목을 받은 후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2020년에는 드라마 『안녕, 드라큘라』, 『미생: 그들이 있었다』 등에 출연하며 연기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I 국어국문학과

한국문학회 상반기 전국학술대회

한국문학회와 부산대 국어국문학과가 주관하는 학술행사가 7월 17일 부산대 시습관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준비위원회와 일부 발표자만 실제 참석하고, 그 외에는 실시간화상회의로 참석하였다. 학술대회의 1부는 학문후속세대의 발표와 자유주제로, 2부는 “전쟁과 지역 - 한국전쟁과 피란수도 부산”이라는 기획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I 중어중문학과

저명학자 초청 특강



중어중문학과에서는 2020년 5월 22일에 저명학자 초청 특강을 개최하였다. 초청 강연자 피경훈 교수(목포대 중국언어와문화학과)는 “혁명과 통치 - ‘문화대혁명’ 시기 마오쩌둥 사상의 근원적 균열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번 특강은 대학원생들의 교육 질 향상과 학문적 활력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2020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저명학자 초청 단기 특강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개최되었다.

I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동문장학금 수여식

영어영문학과는 2020년 1학기 동문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영어영문학과는 2010년 1학기부터 매학기 동문회 발전기금 출연으로 학부 각 학년의 성적우수자를 선정,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I 독어독문학과

상반기 교강사 워크숍 개최

독어독문학과는 6월 29일 (상반기 교강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1학기 수업운영과 관련하여 동영상, 파워포인트, 실시간 화상강의 등 온라인 수업에 활용 할 수업자료 제작과 PLATO, Zoom 등의 플랫폼 이용에 대한 의견, 과제 부여 및 온오프라인 시험 운영, 그리고 수업에 대한 수강생들의 반응 등 1학기 수업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전례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애쓴 각과의 노력에 대해 상호 간 격려를 나누었고, 온라인 수업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2학기 수업 운영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I 노어노문학과

“슬라브문자와 문화의 날”기념 도서전시회 개최

부산대 러시아센터(센터장 이용권 노어노문학과 교수)가 ‘슬라브문자와 문화의 날’(5.24)을 기념해 캠퍼스 내(공동연구소동 813호)에서 러시아 관련 도서전시회를 개최했다. 6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동 행사에서 러시아정교회의 전례와 문학적 유산, 성서, 연대기(사본), 국내 거주 러시아인의 개인 소장도서(고전 및 아동문학), 센터 보유 관련 도서 등이 전시되었다. 개회식에는 겐나지 라브코프 주부산러시아총영사관 총영사, 정종필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디오니시 러시아정교회 부산교구 사제, 정영미 부산대 대외교류본부 부문부장 및 부산대 교직원, 노어노문학과 교수들 및 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석했다. 5월 24일 ‘슬라브문자와 문화의 날’은 슬라브 민족의 문화와 관련된 기념일로서 매년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러시아에서는 1991년부터 이 날을 국경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1 한문학과

BK21 FOUR사업 예비 선정

한문학과와 <한문고전 번역 기반 동아시아_로컬지식학 전문가 교육연구팀>이 BK21 FOUR사업에 예비 선정되었다.

저명학자 초청 특강 – 동아시아 한시의 해석논리와 風格

2020년 7월 9일 하정승(안동대 한문학과) 교수는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도은 이승인, 둔촌 이집, 척약재 김구용 등의 한시에 나타난 풍격의식에 대해 특강을 진행하였다. 하정승 교수는 이러한 고려 말 사대부들의 한시의 흐름이 조선조에게도 계승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시의 해석논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풍격이 갖는 의미와 그 활용방안에 대한 실천적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번 특강은 문학자료 번역에 있어서 필요한 태도와 향후 동아시아 시학이 공유한 풍격의 연구를 위한 길잡이가 되었다.



1 사학과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회

2020년 5월 7일 인문관 412호에서 학위청구논문 중간발표회를 실시하였다. 발표자는 6명으로(정서운, 자오명명, 유희전, 이다솜, 츠명사, 송봉수) 모두 석사과정 수료후 연구생들이었다. 발표 논문의 주제는 「고려시대 別祈恩의 성격과 祭行 형태」, 「연행록을 통해 본 북경의 문화생활-회곡을 중심으로-」, 「일기를 통해 본 18세기 경북 사족의 의료 생활」, 「조선 후기 경상도의 蓼貢과 변화」, 「1930년대 중국 문인의 한국 소설 수용 양상과 의미」, 「일제 초 朝鮮 生牛 移出 정책에 따른 조선인의 '牛' 인식의 변화」이였으며 학위논문답게 신선한 소재들을 다루었다. 이번에는 한국 중세시기부터 근현대시기까지 여러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 덕분에, 중간발표회가 예년보다 더 풍성하게 꾸며졌다.

1 철학과

2020학년도 고교 서머스쿨 개최



철학과에서 8월 18일부터 22일 동안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교 서머스쿨 “철학, 사회문화를 캐스팅하다”(철학과 강사 신주연) 강좌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실시간 화상 강의로 진행되었다. 참석한 학생들은 담당 강사의 지도에 따라 온라인 공간 속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사회·문화적 사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사회문화 현상의 다층성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1 고고학과

BK21 FOUR사업 예비 선정

고고학과와 <동아시아 SAP 융합 인재 양성 사업팀: Science, Archaeology, Public>이 BK21 FOUR사업에 예비 선정되었다.

2020학년도 대학원학술상 수상

부산대 고고학과 심현철 졸업생이 「대학원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우수한 연구활동을 수행한 일반대학원 학생들에게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위 논문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 상을 받은 심현철 학생은 고고학과 학생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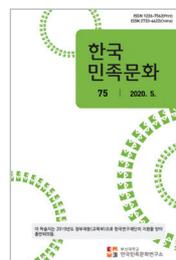


1 인문학연구소



코기토 91호 발간 | 2020년 6월

1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75집 발간 | 2020년 5월



로컬리티 인문학 23호 발간 | 2020년 4월



속종조 인쇄 출판과 서적문화
(장서각한국사강의 14)
강명관 |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2020년 6월

책의 생산과 유통은 역사 일반에 관련된 문제인 동시에 지식사·사상사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어떤 책을, 어떤 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는가?”라는 물음은 특정 지식과 사상의 생산 의도를 묻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의 서적문화사에서 속종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족(士族)이 국가를 이끌었던 조선에서 책은 이들의 의도에 따라 생산되고 유통되었다. 조선이 끝날 때까지 책의 인쇄, 출판, 생산, 유통 등 거의 모든 문제의 결정권은 사족이 장악하고 있었다. 비록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와 예송, 환국 등 내부적인 큰 진통을 겪으면서도, 조선의 사족체제는 이후 3세기 동안 유지되었다. 사족 체제에 봉사하는 서적문화는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그 기본적인 성격이 변하지 않았고, 속종조의 변화도 이러한 기본적인 성격 위에서의 세부적 변화였다. 당시의 정국 변화는 사족을 지역별로 정치권력에서 배제하는 과정이었고, 여기서 등장한 경화세족의 존재와 당쟁은 속종조 나아가 조선 후기 서적문화를 간섭하였다. 속종조에 사족체제가 다시 보유하게 된 서적의 인쇄·출판 시스템과 하드웨어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성과는 자유롭고 활발한 새로운 사유를 담은 서적의 제작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영조와 정조 시대에 가서야 보다 풍부한 서적문화의 개화가 가능했다.



영어다운 영어: 영어식 구문과 표현 따라잡기
박기성, 신진원 |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 2020년 6월

본 교재는 번역투나 콩글리시가 아닌 진짜 영어다운 영어를 구사하고자 하는 고급 영어학습자를 위한 안내서이다. 한국인의 인지구조를 바탕으로 영어식 문장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고안된 고급영어 글쓰기 및 토론 교재이다. 영어학습자가 본 교재를 활용하여 영어학습을 진행하면 한국어 화자의 인지적 구조와 영어식 구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콩글리시를 탈출하게 될 것이다.



마수농언 역주
최덕경 | 세창출판사 | 2020년 6월

사학과 최덕경 명예교수가 청대 산서 출신 기준조(祁寯藻: 1793-1866년)가 함풍 5년(1855)에 간행한 농서 『마수농언(馬首農言)』을 번역한 『마수농언 역주(馬首農言譯註)』를 발간하였다. 『마수농언』의 ‘마수’는 산서성 수양현(壽陽縣)의 옛 이름이며, ‘농언’은 농업, 농촌 및 농민에 관한 다양한 기록을 모은 것이다. 기존의 농서가 뚜렷한 경계가 없는 폭넓은 지역의 농업(기술)에 대한 서술이었던 것에 비해, 본서는 수양현의 농업현실 전반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격동의 19세기에 출판되어 당시 이 지역 농촌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전통의 농업과 농촌의 문화가 어떻게 계승되고 변모되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이 책은 화북의 마수라는 농촌지역을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당시 국내의 봉건적인 질서의 변화와 함께 교통과 상업의 발달로 인한 곡물가의

영향이 궁벽한 농촌지역에까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제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서는 19세기 화북의 한전(旱田) 농업의 유산인 것은 물론, 상공업이 기존의 농업과 농촌문화에 어떤 변화를 주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했는지를 이해하는 좋은 지침서가 된다.



상호교차성
패트리샤 힐 콜린스, 시르마 빌게 저 | 이선진 역 |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 2020년 2월

영국의 폴리티 출판사의 <핵심 개념> 총서의 하나로 기획된 이 책은 최근 페미니즘과 같은 학문과 실천이 교차하는 영역들에서 키워드라 할 수 있는 상호교차성의 개념과 역사 등 그 중심 내용을 소개하는 입문서이다. 이 분야의 핵심 학자인 콜린스와 신흥 학자인 빌게는 전문적 해박함에서 나오는 명료한 서술과 풍부한 사례 제시를 통해 독자들이 상호교차성을 둘러싼 담론을 이해하고자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상호교차성에 대해 제기된 회의에 대응하여 두 필자가 이 책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상호교차성이란 비판적 연구이자 실천이며, 상호교차성은 페미니즘 정체성 이론으로 환원될 수 없고,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그 비판의 날이 무뎠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성찰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의미란 무엇인가: 의미론 지침서
폴 엘번 저 | 권연진, 임동휘 역 | 한국문화사 | 2020년 7월

폴 엘번은 그만의 명쾌한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의미’의 복잡한 속성을 탐구한다. 그는 언어학, 철학, 심리학 분야에서 발전시켜온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하되 독자의 입장에서 서서 관련된 사전지식을 가정하지 않는다. 인간의 심리학적, 문화적 특성에 필수적인 요소인 ‘의미’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누구든지 매료될 만한 방식으로 ‘의미’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엘번의 책은 ‘언어학적 전환’에 따른 언어철학 분야의 발전 현황에 있어 최신 핵심 논제들을 잘 소개해 놓은 훌륭한 개론서임에 틀림없다. 엘번의 『의미란 무엇인가: 의미론 지침서』는 영어권을 포함한 세계 학계에서 의미와 의미론에 대한 필수 지침서로 추천하는 도서 중에 ‘완벽한 가이드북’이라는 평을 얻은 몇 안 되는 책들 중 하나이다



타자성과 초월
에마누엘 레비나스 저 | 김도형, 문성원 역 | 그린비 | 2020년 3월

레비나스가 1967년부터 1989년까지 여러 곳에서 발표한 9편의 논문과 3차례의 대담을 엮은 모음집 『타자성과 초월』이 레비나스 선집 4권으로 출간되었다. 일관되게 견지해 왔던 타자와 윤리에 대한 강조에 덧붙여, 평화와 권리에 이르는 사유의 전개 과정은 ‘제일철학으로서의 윤리학’이란 명제가 갖는 본래적 의미를 정치의 문제와 더불어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초월, 전체성, 무한 등을 철학사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고, 그것들이 어떻게 이해되었고 또 어떻게 다시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한다.